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ashington, D.C.

www.naks.org

Established since
1980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5 회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2016 년 8 월 12 일(토) 오후 3 시 30 분부터 5 시 30 분

장소: A 704, Atlanta Marriott Marquis Hotel, Atlanta, GA

사회: 총회장 이승민, 기록: 사무총장 황정숙

1. 정기 총회 성원 파악

- 참가자 86 명, 참관인 7 명으로 정기총회가 성원 되었음을 알리다. (황정숙 사무총장)

2. 개회 선언

- 이승민 총회장이 사회를 맡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5 회 총회 개회 선언을 하다.

3. 회순 채택

- 사회자가 회원들에게 1-16 번까지 항목으로 회순을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물었고 황희연 회원의 동의, 이광호 회원의 재청이 있었다. 회원 모두가 '네'로 동의하였기에 회순이 채택되다.

4. 34 회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및 통과

- 34 회 정기총회 회의록이 학술대회 강의를 47-49 쪽에 있으므로 낭독 없이 그대로 받기를 요청하다. 이에 학술대회 강의록에 실린 내용으로 받기로 하고 통과하다.
(동의: 오정선미, 재청: 이은애)

5. 협의회 사업 보고

- 이승민 총회장이 학술대회 프로그램 51 -54 쪽에 있는 협의회 사업보고를 하다.
- 그대로 협의회 사업보고를 받기로 하고 통과하다. (동의: 추성희, 재청: 신현주)

6. 2014 - 2015 회계 연도 감사 보고

- 황현주, 길병도 감사가 행정감사 및 재정감사 내용을 보고하다. (발표 황현주)
- 2016. 9.24-25 새벽까지 감사를 하다 (감사 참가자: 최미명, 유미순, 장동구, 고은자)
- 감사보고: 비영리단체 보고, 총회 관련 문서, 사업 계획서, MOU 체결 등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대외서류가 잘 보관되어 있다. 재정장부, 재정보고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은행장부와 잔액이 일치하였다. 17 대가 효과적으로 재정을 잘 운영하였고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다. 그 노력으로 행사 비용 절감하여 재정적인 안정을 꾀하다. (참조 2015-2016 회계 연도 감사 보고서-첨부 문서 1)

- 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고 통과하다. (동의: 원혜경, 재청: 한연성)

7. 2015-2016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 (첨부 문서 2 참조)

- 김미경 재무가 2015-2016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를 하다.
- 질문 사항:
 - 2016 년 중간보고를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성희 회원이 현재 어떤 상태로 적립이 되었는지를 궁금해 했고 최미영 직전 총회장이 마이클양 기금으로 투자 적립된 상태임을 설명하다. 17 대에서 마이클양 기금에 추가로 적립한 11 만불은 서명을 해서 넘겼으며 이 기금은 낙스 사무실 구입을 위해 적립되어 있음을 알리다.
- 2015-2016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는 오정선미 회원의 동의, 강화자 회원의 재청이 있었고 모두 '예'로 답함으로써 통과되다.

8. 2017-2018 회계 연도 사업계획 심의 및 통과

이승민 총회장이 2017-2018 회계 연도 (2017.9.1~2018. 8.31) 사업계획안을 발표하였고 18 대 집행부에서 수정이 가능함을 알리다. (2017-2018 회계연도 사업 계획안 첨부 문서 3 참조)

- 기타 질문사항:
- 10 번 한국어 수업활동 포스터 경시대회 사업에 대해 문의가 있었고 총회장의 설명이 있었다. (학술대회에서 한국어 교수 뿐만이 아닌 모든 한국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장을 만들고자 함)
- 남일 회원이 20 번 협의회 ID 제작에 대한 설명을 요했고 총회장의 답변이 이어지다. (5 불 판매)
- 한국어 수준별 평가 및 반 배치 시험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총회장이 진행중임을 설명하다)
- 한연성 회원의 SAT 한국어 교재 및 낙스 발행 교재 배포에 관한 문의가 있었다.
 - 올해는 SAT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결과가 늦어져서 여름방학 전에 학생들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방학 전에 평가 결과를 받아보기 원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 허병렬 참관자는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꿈'으로 제한하지 말고 자유 제목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로 진행하기를 제안했다. 이승민 총회장이 이는 참관자의 의견으로만 받기로 했다.
- 이승은 회원은 차세대 리더상과 주니어리더십어워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보조교사는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까지) 총회장의 답변이 있었다.
- 이은애 회원은 낙스 학술대회 기간 중에 시상식 시간을 줄여줄 것을 제안하면서 교사들이 수업을 더 많이 듣도록 시간을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총회장은 이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시상 방법 등을 더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 추성희 회원은 찾아가는 차세대 교사 간담회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준별 평가 및 반 배치고사와 표준평가 문항집과의 차이에 대해 문의했다. → 이승민 총회장이 맞춤형 한국어 교재 기준으로 만든 표준평가 문항집과 수준별 평가 및 반 배치 교사 사업에 대한 안내를 했다. (예: 8 월 26 일 동중부협의회 찾아가는 교사 간담회 재외동포재단에서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을 감사 지원, 교사연수회 진행하면서 보조교사들 모아서 보조교사 대상 간담회 진행 방식 등)

- 이광호 회원이 나의꿈 말하기 대회는 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아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해 나갈 수도 있겠고 해마다 진행을 하던 사업이니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어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이승민 총회장이 현재까지 제 13 회 나의꿈 말하기 대회를 치른 시점에서 <나의 꿈을 찾아서>라는 E-Book (180 페이지 완성) 을 만들고 있음을 공지하다. 또한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자는 낙스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대회와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조덕현 회원은 나의 꿈 말하기 대회의 주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소재는 다양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 놓다.
- 2017-2018 회계 연도 사업계획안을 받기로 하고 통과하다. (동의:신현주 , 재청:이광호)

9. 2017-2018 회계 연도 수입 지출 예산안 심의 및 통과

(2017-2018 회계연도 수입 지출 예산안 첨부 문서 4 참조)

- 이승민 총회장이 2017-2018 회계 연도 수입 지출 예산안을 발표하였고 이 또한 18 대 집행부에서 수정이 가능함을 알리다. \$343,000 불로 수입 총액을 책정하다. 정광현 회원이 SAT 한국어 교재 발간 계획을 문의했고, 강성봉 회원은 이사회비의 인상을 건의했다. 회비를 올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 2017-2018 연도 예산안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통과하다. (동의: 박수경 재청: 윤수경)

10. 이사회 보고

고은자 이사장이 아래의 이사회 내용을 보고하다.

- 후원금 14,500 불 모금하여 전달하다. 첨부파일 참조 (선출이사 명단 참조하기)
- 2018 년 36 차 학술대회
- 2019 년 37 차 학술대회
- 이사회 결의: 17 대에서 잔여금 11 만불을 낙스 사무실 마련을 위해 입금하였고 이를 사무실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음을 보고함
- 수상자 명단 조정 (2018 년)
- 이사회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동의: 심용휴, 재청: 윤수경)

11. 제 36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선정 보고

제 36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발표

날짜: 2018. 7.19-21

장소: Chicago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Convention Center

1551 Thoreau Dr. Schaumburg, IL 60173

- 중서부지역 회장 윤현주 회장이 2018 년에 있을 시카고 학술대회를 홍보하다.
- 2019. 7. 서북미 지역을 다음 학술대회 개최 지역으로 선정하다 (이사회)
서북미지역협의회 회장 이미숙 – 2019 년 시애틀에서 37 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개최됨을 알리다.

12. 기타 안건 – 기타 안건 없음

13. 폐회

- 이승민 총회장이 오후 5 시 15 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동의: 이은애, 재청: 원혜경)